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69호
3월 27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제22회 정기총회

교회에 대한 정치방역 강력대처

대표회장엔 신재영 목사 선임... 차별금지법·동성애합법화 반대



경북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북기총)는 지난 3월 19일(금) 오전 11시 경북 구미시 야은로 11길 구미시 하늘문교회에서 코로나19로 참석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감염병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한 효율적인 대처에 힘을 모으고 경북지역복음화를 위해 더욱 하나 되어 큰 뜻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1부 개회예배, 2부 정기총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개회예배는 대표회장 설정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방영팔 목사의 기도, 상임서기 박금배 목사의 성경봉독, 경북기총 중경회장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예하성 중경총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배 목사는 사 41:10 말씀을 본문으로 '호연지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믿음의 호연지기(豁然之氣)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항상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호연지기(豁然之氣)를 품고 기뻐하며 쾌(快)하게-유쾌(愉快)하게, 상쾌(爽快)하게, 통쾌(痛快)하게,



신임대표회장 신재영 목사(우측)가 직전 대표회장 설정수 목사와인사를 나누고있다.

명쾌(明快)하게-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했다.

대표부회장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축하 및 격려 순서로 사무총장 김길동 목사의 내빈소개,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와 경북기총 중경회장 김승동 목사의 축사, 직전회장 이정우 목사의 격려사, 상임서기 박금배 목사의 광고로 1부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2부 정기총회가 대표회장 설정수 목사의 인도로 개회되어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인선위원회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여 제22대 대표회장엔 신재영 목사

(예하성 총회장)를 선임하고 일부 임원진을 개설했다.

대표회장엔 선임된 신재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전한 뒤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큰 사람으로 풀어주시고 지도해 주신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님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가르침으로 인도해주신 배진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승동 목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역자들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설치된 단군상 철거에 큰 힘이 되어주신 경북기총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북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섬기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고 경북기총의 영적전통을 이어가는 섬기는 종이 될 것"을 다짐했다.

신 목사는 또 "복음의 절대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일에도 경북기총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1999년 창립한 이래, 도내 2500개 교회에 참여하는 경북지역 최대 기독교 초교파 모임으로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교회의 공동과제 대처를 위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염병 감염을 빌미로 교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정치방역에 과감히 대처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학생들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등 주요 문제를 철저하게 공동의 과제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하라

반인권적, 반교육적행위 시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교연 성명서 전문]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인권조서'란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한국교회연합은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까지 편향적 인권이념 주입과 편 가르기, 역 인권 침해로 학교교육현장을 파괴할 '인권조서'란 제도 등 일체의 불순한 시도를 규탄하며,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에도 '성 평등' '성소수자' 문제를 명시하려다 기독교계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다시 '성소수자' '성 평등'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와 교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마저 좌파적 진보이념 실현의 도구

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이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권협약'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 현장의 순수성과 건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된 '인권조서'란 제도는 교육 현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 십 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겠다는 그 설치근거가 불분명한 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2017년 제지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부안 상서중 교 송경진 교사 사건을 기억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아무 분별도 없이 사 종결한 사건을 지역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피민원인의 인권과 인격

을 수차례 침해, 가해함으로써 해당 교사의 인권과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짓밟은 비극적 사건이다.

이 사건의 뿌리이자 뒤편 인권조사관이 서울시내 학교 곳곳에서 또 어떤 인권과 인격, 교권 침해를 지행해 더 끔찍한 사건을 불러오게 될지 알 수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이름답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마저 정치적 편향적 인권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수 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 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 시도를 철회하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성인권시민조사관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편향적 인권요소를 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6만여 한국교회, 천만 성도들은 학교 현장에 동성애를 끌어들여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비교육적이고 반윤리적인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철폐와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5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미안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

한국교회는 미안마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행동을 지지한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미안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할 때다.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유와 진리, 사랑과 용서다.

폭력은 아편이며 하나님과 인류 정신에 대한 반역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여

하한 민행들을 규탄한다.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인명을 살상하는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세계 자유 민주 국가들과 양심 세력들은 아편인 폭력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신군부 독재의 폭정에서 당연히 한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값비싼 댓가를 치루

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랑스런데 여기며, 금번 미안마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헌신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안마 군부를 향한 제한 조치를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말씀하셨다. 전에 우리가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알지 못했으나, 우리를 위하여 올라 준 세계교회들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미안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다.

- 한국교회연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조용목 목사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마 25:1~13)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슬기로운 자가 되거나 미련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당시 유대사회의 혼인 관습에 비유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단 7:13,14) 천사들이 예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렘 1:9~11)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마 24:30,3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 있는 자들의 몸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면류관을 받으며 그의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후 1:7~9)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처녀들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려

면 반드시 등과 기름을 예비해야 합니다. '등'은 교회의 의식, 교리, 체제, 전통과 같은 것이고,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입니다.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고, 교리를 배우고, 교회의 체제와 전통을 존중하여 여섯 직분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신자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들이 시간이 지연되므로 지쳐서 졸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정신이 반쯤 들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는 결코 충분치 못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였습니다. 신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릴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뒤늦게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여도 이미 때가 늦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지만 그들에게 들려온 말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는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여 어떤 비상한 행동을 취할 것은 없습니다. 구속 신앙에 굳게 서서 예배 중심으로 살며,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의 끝에 "그런 주께 있어 이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 25:13)라고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죽음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신자에게 휴거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울시장후보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발언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억압할 우려가 있어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발언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억압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2월 14일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유들까지도 모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사유로 포함할 때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공개적 비판, 반대를 괴롭힘으로 보아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성애 옹호 교육이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시행하게 되는 것을 앞선다. 이 법을 시대의 흐름이라며 찬성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이라며 종교적 기반의 대학에 '차별적 성매매' 옹호 특강과 '동성 결혼' 영화를 상영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린 바, 이러한 인권위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을 말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있는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남녀 양성에 근거한 법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하며, 법이 시행되면 이에 대한 비판마저 '괴롭힘 내지 언어적 차별'로 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영국은 평등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와 성별 선택을 포함한 젠더 교육이 행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10년간 성전환 희망 10대의 수가 33배나 폭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는 결코 한국이 따라가야 할 시대의 흐름이 아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성전환 희망 자녀로 인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기 싫어하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추기요 언급하고 싶은 것은, 후보 단일화로 지금은 사퇴한 금태섭은 '퀴어 페어리드'에 참여하겠다며 '거부할 권리'를 언급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혐오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서울시장 앞의 퀴어 페어리드는 동성간 성행위 옹호, 10대 학생 참여 등으로 인하여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혐오발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비판 또는 반대하는 의견 자체를 혐오로 보는 독선적 사고를 보여준다. 금태섭은 퀴어 페어리드를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상 법적 제재가 가능한 차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신전제주의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1000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나서는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알면서 이런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성도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스스로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3. 12.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전 세계 코로나 소멸 위해 기도운동

각 연합단체와 함께 사순절·부활절 기간 기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19 소멸하기 위한 기도운동이 펼쳐진다. 세계교회연합 기도운동(공동대표 윤보환 감독)은 지난 3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크로스로드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 세계 부활절 한바퀴 기도 행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전 세계 부활절 한바퀴 기도 행동'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성 목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중준 목사), 인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기덕 목사), 미래목회포럼(이사장 정성진 목사,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변권능 목사) 등 국내 연합단체와 빌리그래함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와 미주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민승기 목사), 유럽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장형영 목사) 등 해외 여러 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운동을 기획한 윤보환 감독은 "세계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소멸시킨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해질 것이고, 세상이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전 세계 부활절 한바퀴 기도 행동'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 일부언론과 방송 알박기 보도 허위

“사랑제일교회는 1957년 소나무 밭에 세운 교회”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가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알박기 했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인 김지연, 지덕, 이응구 목사 등 증경대표회장단과 전광훈 목사는 지난 3월 16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일부 언론과 방송이 악의

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교회가 '알박기'를 위해 교회 이전을 거부했다는 식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1957년 교회가 위치한 전체 지역이 소나무 밭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특히 "알박기는 LH 사건처럼 정보를 미리 알고 확보해서 보상비

를 많이 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마을 보다 먼저 세워져 있었는데 '알박기'란 말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재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이라며 "당시 공무원이 직접 교회 자리를 그려주고 건축비는 사후 조정하기로 했는데 감옥에 가니 일방적으로 공탁금 84억을 걸고 우리를 쫓아내려 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이어 "박원순 시장이 만든 서울시 조례에 따라 종교단체는 지역 재개발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개발 단체와 재건축비를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교회가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알박기를 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백시 목회자들, 카지노 도박폐해 대책회의

5월에 폐광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2차 회의를 갖기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카지노가 개장한 이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기독교와 가톨릭 성직자들이 '도박을 격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을 결성했다. 5~6년 후 신부들의 잦은 이용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시, 태백 예안장로교회(담임 백정곤 목사)에서는 카지노도박폐해대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태백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진장길 목사, 총무 김성호



목사, 도계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창하 목사, 총무 김도영 목사, 태백성서회운동본부 본부장 오대서 목사, 사무총장 최상규, 도박을격정하는성직자들의모임 임대현 목사, 도박을

격정하는성직자모임 전 회장 최준만 목사(정선 법퍼를 하는 하늘나눔회 대표),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가 참석했다.

미주 한인 교계, ‘평등법저지운동본부’ 출범

한기총 목사 “동성혼 합법화보다 큰 혼란과 타락 우려”

진동성에 법안인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미 상원 결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평등법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총 목사)는 미주 한인들의 반대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평등법저지운동본부는 지난 3월 17일(수)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기총 목사는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으로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 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평등법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보다 더 큰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총 목사는 또 "평등법안에 따르면 교



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며 "교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등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 인교계와 한인성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며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반대 서명을 위해서는 <https://p2a.co/BN6B7tc> 접속 후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 성도들에게 평등법 반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미얀마 평화를 위한 정오기도회 연장

세기총, 오는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매일 낮 12시 1분간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 이후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희생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던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위한 정오기도회를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연장 진행하기로 했다.

세기총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와 자유가 빠른 시일 내 시민들에게 되돌아가고, 미얀마의 시민들이 안정된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한국교회와 750만 디아스포라와 함께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안정을 위한 기도운동을 펼쳐 간다는 계획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쿠데타를 일으켰고,



미얀마 시민들은 군의 무력 진압에도 목숨을 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는 지난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됐으며 2천 명 이상이 불법

구금되었고,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최근 미얀마에서는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강경 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희생의 소식이 들리고 있다"며 "미얀마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로 신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미얀마의 시민들이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존중되는 나라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기총은 3월 1일(월)부터 3월 14일(주일)까지 2주간 매일 정오에 1분간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정오기도회를 실시했으나 미얀마 상황이 계속해서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미얀마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민족복음화협의회 조직 새롭게 개편

민경배 대표고문, 피종진 대표총재, 문원순 대표회장, 김종남 이사장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도약을 다짐했다. 1977년 '77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치르고 신현균 목사를 중심으로 17개 교단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구성된 민족복음화운동본부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민족복음화협의회(이사장 김종남 목사,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문원순 목사, 이하 민족총합)가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민족협회는 지난달 25일(목) 오전 11시에 종로5가 사무실에 민경배, 피종진, 심재선, 김종남, 문원순, 손 덕, 김지석, 박일녀, 김진호, 한석구, 김영랑, 김영도, 신필수, 한정수 목사, 한상수, 이상렬 장로, 이송미 사모 등이 모여 임원 및 운영이사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다.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는 "본회에 하나된



의 손길이 더해져서 한국교단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부흥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확장과 복음전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상임총재 심재선 목사는 "신현균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활발히 활동하던 민족복음화 운동이 한동안 주춤했지만 다시 조

직을 개편하고 우리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고 꿈이다. 민족복음화 운동이 침체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재창비하여 열심을 내서 과거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던 때처럼 일으켜보자는 취지로 새롭게 도약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첫 온라인 목사고시 진행

온라인 고시본부 설치, 사전준비 만전

(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설립자 박조준 목사, 회장 임재환 목사) 이하 WAIC의 제15회 목사고시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최근 열렸다. 오랜 코로나의 여파로 수차례 고시 일정이 미뤄진 상황에서 첫 '온라인 목사고시'가 시도됐다.

조직신학, 교회사, 성경고사에 이어 면접고사까지 치러진 이날 목사고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시험인 만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차례 이상 수험생들과 모의시험을 진행했고, 시험 시작 직전까지 시스템을 점검했다.

또한 WAIC 사무실 내에 고시본부를 차리고 시험 진행을 위한 PC와 대형 모니터, 면접시험용 스튜디오 등을 설치했으며, 인터넷



접속장소에 대비한 백업용 통신시설까지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도 돋보였다.

WAIC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못한 수험생들이 온라인 환경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 서술식 답안을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제출토록 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설립자 박조준 목사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여호수아를 본받아, 믿음에 확신을 갖는 목회자가 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금번 제15회 목사고시 결과는 오는 3월 29일(월) 발표되며, 합격자들은 온라인 목사 안수자(부부)교육을 거쳐, 오는 4월 5일 제15회 목사안수식에 참가한다.

기감, 쿼어축제 축도 목사 징계 두고 대립

항소심 총회재판위에 “면직 내지 출교하라”

쿼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 소속 연회(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를 둘러싸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달시달하다.

단순히 징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차별 금지법' 문제와 맞물려 있기에 더

욱 시끄러울 전망이다.

지난 달 22일 오후 4시 감리회본부 16층 본부교회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총회재판위원회(2명) 주최로 진행됐다.

재판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을 하려는 재판위원회에 맞서 이동환 목사가 보이콧을 함으로써 다음 기일(3월 2일)만 확정하게 피행했다.

재판을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 회랑광장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두 건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동환 목사 출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먼저 오후 2시,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서울남연회 목회자 및 평신도 연대, 감리교회 바로세우기 연대(감비연), 감리회 기록성 회복을 위한 비성대적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 성결운동본부(웨성본) 등이 이동환 목사 출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생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은퇴 및 취임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신병설 목사) 소생순복음교회는 지난 3월 14일(주일) 오후 4시 동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취임 및 명예장로 추대 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재호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용 목사의 대표 기도, 서기 기호선 목사의 성경봉독, 박영숙 권사의 특송에 이어 이복 순복음교회 이봉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왕상 2:1-4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이목교회 선지자님의 기도를 통해 사명을 깨달아 평신도 때부터 한 교회에서 5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한 육백전 목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분 말씀에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병상에 불러놓고 하 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하라. 둘째, 악을 제거



하라. 셋째, 강하고 담대하라. 넷째,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증거했다.

이 목사는 이어 "이날 취임하는육요셉 목사도 가장 힘든 고향에서의사역이지만아버지의 뒤를이어열심히사역할 것"을 부토했다.

이어 2부에서는 육백전 목사의 은퇴사와 육요셉 목사의 취임사에 이어 지방회장 신병설 목사의 공포, 보은순복음교회 윤경현 목사의 축사와 한희순복음교회 이동수 목사의

권면이 이어졌고, 그동안 지방회를 위해 헌신한 목사님께 지방회장 신병설 목사가 은퇴패를 증정했다.

3부에서는 육백전 목사의 사회로 김기석, 김준기 안수집사를 명예장로로 추대하며 담임목사의 공포와 추대패 증정에 이어 지방회장 신병설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정기지방회 및 지방회 새 임원 선출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오세준 목사)는 지난 3월 16일(화) 향기로운교회(담임 육준수 목사)에서 제18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지방회 새 임원을 선출했다.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이날 예배는 박응진 전도사,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 후 지방회 총무 육준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재무 문찬우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시 26: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흔들리지 아니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박태균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오세준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제18차 정기지방회의를 지방회장 오세준 목사의 인도로 개최하여 서기 강인택 목사의 회원점명 후 개회선언, 기록 서기 선출 등을 하고, 총무 육준수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후 제17차 연도 행사와 지방회 총무 및 서기, 재무, 회계, 감사 등을 보고하



였다. 이어 제18차 연도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선거인단을 선출하였다.

이날 선출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방회장 육준수 목사(향기로운 교회), △부회장·총무 강인택 목사(순복음분향교회), △서기·회계 박태균 목사(순복음하늘샘교회), △재무 문찬우 목사(여호수아교회).



교회폐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애법 입법반대

2021년 제1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2021년 제1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3월 18일(목) 오전 7시 아산시 외남로에 위치한 삼광교회(박노섭 목사, 본회 실무회장)에서 개최하고 교회폐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입법반대를 위해 한마음을 한뜻 되어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에는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진 목사는 "올해 들어 처음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찬기도회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지난 5년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 우한코로나19 바이러스로 1, 2월 기도회를 갖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 안위와 4/7 서울, 부산시

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폐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입법반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합하여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아울러 "아산시 기독교연합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부회장 구자범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과인숙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 목사는 행 10:22-28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복음화의 길'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고백로는 이방인 군 장교였지만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인격과 권위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그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 베토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았다. 세리 삭개오는 죄인으로 치부되어 따돌림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집에서 유하신 것 처럼, 오직 우리는 말씀의 진리에 서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격려사로 본회 고문 김소윤 감독



은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은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조심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했다. 본회 고문 김상철 목사는 축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만 이전 명보드는 하나님께 접하여 쓰임 받은 300명의 용사를 필요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의와 싸워서 이겨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지"고 하였다.

이어서 여운문학상을 받은 시인 신상우

목사의 시낭송이 있었고, 서기 정수희 목사의 헌금기도와 신상우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보고회 및 공지사항 순서로 조이철 목사(상임위원)의 사회로 시작하여 국회의원 이명수 국민의원 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4.7보궐선거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 회장 홍석용 목사는 부활절연합회 행사에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

고, 이어 바른인권위원회 원장 황기식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반대를 당부했다.

이어서 충남도기독교연합회 서기 장현원 목사는 동성에 조성과 교육을 미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취소를 위해 협력을 당부했다.

3부 기도회는 부회장 이광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주례별 순서대로 1)나라와 민족을 위해 김수홍 목사(상임위원), 2)중국우한 폐렴(코로나19)바이러스 소멸을 위해 임기식

목사(고문), 3)이끼면 부흥과 연합회를 위해 온재현 목사(상임회장), 4)민족복음화를 위해 김병완 목사(상임회장), 5)교회폐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폐지를 위해 박해서 장로(후원회)의 기도와 전체의 합심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의 광고에 이어 사진 촬영이 있던 후, 장소를 이동해 삼광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오랜만에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물습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가지 잘했는데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10-1=0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장과 도구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집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 회복, 홍망성쇠로 인해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택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담임목사 063)625-0690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 운동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I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 생명의 말씀 ■



장 호 순 목사
· 충남지방회장
· 금강순복음교회 담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환난이 무엇 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 으로부터 밀려오는 압박 속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틀림시스’라는 단어로 ‘압박’, ‘질진’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환난이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끊이지 않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요 16:32)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 주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본분을 통하여 모든 이가 다 떠나도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때로 극심한 외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연약한 사람들은 손을 잡을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또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 나지막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떤 환난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나 이 진리를 가슴에 담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살 길을 내시며 구원의 강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담대해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요 16:33)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는 환난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들은 낙담해서 세상의 거대한 풍파 앞에 쓰러지지만 우리들과는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믿고 용기를 갖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가사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시 68:19)

시편 가사의 고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날마다 집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대신 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은 완벽한 해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각종 환난 앞에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요 16:33)

예수님 밖에서도 일시적인 화해와 기쁨을 맛 볼 수는 있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빠져 있는 오류 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일시적인 평안만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본질적인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영원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맡겨 드림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짐을 내려 놓고 평안한 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숨이 멎는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하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참된 평안을 예비해 두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함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가 정보를 통한 ‘신 내림’ 받은 부정부패인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 개발을 하면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직원들과 주변인들의 대대적인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심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이것이 국가 주택 정책의 부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들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만든 공공기업의 주택사업을 믿었다. 그런데 고약이에게 생선 가게를 팔겠다고, 값비싼 생선은 먼저 도둑맞은 셈이 되고 말았다.

LH는 그 설립 목적에서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가진 정보의 선이용으로 개인 생활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려한 셈이 되고 말았다.

LH는 ‘신의 직장’이란 말을 듣는다. 이곳의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568명이며, 정규직 남성의 연봉은 평균 8,000만 원을 훨씬 넘고, 성과급상여금까지 하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은 2억 원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의 몫을 자신들이 챙겼더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LH는 13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부 직원들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편취(偏取)를 하더니, 이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이란 말인가?

거기에서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자체 의회, 의원들까지 투기를 하여 그야말로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복바림(伏魔殿)이 되고 말았다. 돈 놓고

돈 먹는 대형 투기장이 된 것이다.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폭로하브로 시작되었는데, 정부는 1주일이나 지나서 수사에 나서는 등의 느닷내 대처에 나섰다. 그래서 이미 핵심 증거는 인멸(湮滅)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강력대처를 표방하지만,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전산규명하고 위법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대건 대표 권한대행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빼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수도 없이 ‘공정’을 부르짖지만, 과연 이 정부 자체가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한 마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 국토교통부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상당한데도 그에 대한 정계 움직임은 없다. 또 변 사장이 있을 때 LH의 청렴도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누가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이 사건이 터진 후에도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의 문제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LH 직장인 익명으로 사용하는 ‘블라인드’에는 ‘하차회 한두 달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등의 글들이 올라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신도시 개발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이 정권의 시활을 결코 철저히 하거나 수사를 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여 국가 정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공직자들은 ‘신 내림’ 받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를 용인한 정부는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로 낙인 찍혀 국민들로부터 계속 심한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정직한 자와 부정한 자와 악한 자의 결말을 구별하여 말씀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잠 14:11)

동 정

한동대, AI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는 약 9개월간 선린예육원(원장 박정민), 포항시, 아시아교육협회 등과 협력해 선린예육원의 초·중·고 학생 대상 ‘AI(인공지능)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 한동대 학생들은 학습멘토로 참여한다.

한비야 ‘법피어스아너 클럽’ 회원에



국 제 구 호 개 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에서 지난 15일(월)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을 ‘법피어스아너 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 한비야 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에서 9년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세계 각국을 방문해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펼쳤다.

이승구 교수 차별금지법 강의



이승구 교수(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가 19일(금)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차바

아) 시즌2 제14회 강좌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정통 신학적 논의’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동성애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예수를 만난 뒤 고침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시안 보호 해결책 마련 촉구



한미연합회(유니스 송 대표) 커뮤니티 리더들과 선출된 공직자들이 반아시안 폭력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총격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미연합회(KACO)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 범죄와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리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윈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뭉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화성/경무직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워터,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렌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버터, 마카데미아넛오일등

⑨ 젤뮈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리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자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기고문

김희선 정로 // 동성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본부장·(주)아이투엘건설 회장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후원이사장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이유”

이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개별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고용상 성차별금지법 등이 차별금지사유별 또는 차별금지 영역별로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다양한 차별금지사유 및 차별금지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각각의 개별적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규율하는 몇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동시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아내는데 비효율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복합차별에 대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막기 힘들다는 이유다.

과연 복합차별 때문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일까?

사실 이미 한국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살펴보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대한 19가지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법적 구속력’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결정만 할 수 있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벌금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보통 인권위원회법을 일반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인권위원회법과 함께 개별적 차별

금지법으로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되어 있음으로써 차별의 시정을 강화하는 면에서 현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등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각 나라의 형편과 방향에 따라 내용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영국에는 평등법(Equality Act)이 있고, 독일에는 일반평등대우법(General Equal Treatment Act)이 있다. 또 호주와 캐나다도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laws), 인권법(Human Rights Act) 등의 이름으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들이 있다. 미국의 민권법(Civil Rights Act)도 차별금지외 평등에 관한 대표적 입법례이다.

이런 각 국가의 실례를 돌아보다면 엄연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에 인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들의 논리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봐야는 볼 수 없다.

현재 한국교회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에 리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나 발의를 예고하고 있는 일명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는 제3의 성까지 규정하고 이를 성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았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들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개 회원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제3의 성’을 인정한 국가는 ‘호주, 독일, 뉴질랜드’ 등 3개 국가 뿐이다. OECD를 넘어서도 ‘네덜’을 포함해 전 세계 4개 국가만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의 성’을 ‘포괄적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 ‘포괄적차별금지법’에 의해 ‘자신의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교육이 진행되다 보면 반동성애 교육은 금지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은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 ‘제3의 성’이 허용되는 것이 곧 ‘동성애’ 조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47.7%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그 원인은 ‘동성애’에 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의 입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고 있으나 ‘동성애’나 ‘동성애 조장’ 자체에는 반대 입장 이 높다는 결과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차별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두 가지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차별은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교회는 차별을 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차별을 반대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평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인간은 본래 혈통에 의해 차별화된 신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고유사상이다. 교회의 출발 역시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인종적, 성적, 계급적 불평등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서의 하나됨을 통해 평등 공동체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차별을 막아낼 수 있다. 아마저 부족하면 개별 차별금지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결국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는 결과 외에는 다른 방향이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의 사상이나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차별을 반대하며 평등을 주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포괄적차별금지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차별하는 일명 ‘역차별’의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역차별’의 시대를 거부해야 한다. 건강한 다음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이 허용되는 것이 곧 ‘동성애’ 조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47.7%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그 원인은 ‘동성애’에 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의 입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고 있으나 ‘동성애’나 ‘동성애 조장’ 자체에는 반대 입장이 높다는 결과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차별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두 가지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차별은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교회는 차별을 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차별을 반대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평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인간은 본래 혈통에 의해 차별화된 신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고유사상이다. 교회의 출발 역시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인종적, 성적, 계급적 불평등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에서의 하나됨을 통해 평등 공동체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차별을 막아낼 수 있다. 아마저 부족하면 개별 차별금지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결국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는 결과 외에는 다른 방향이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의 사상이나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차별을 반대하며 평등을 주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포괄적차별금지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차별하는 일명 ‘역차별’의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역차별’의 시대를 거부해야 한다. 건강한 다음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 성명서

표현, 양심, 종교·자유 심각하게 훼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 강력 반대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성명서〉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령,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종립학교의 체질에서 교육이 설교를 하는 경우 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하여 언급을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히 침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 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 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니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에서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 치료, 회복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해 주게 되면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게 되고, 관련 학교와 교사는 징계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 소수자의 권리 보호만 있을 뿐, 탈동성애자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이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대교 학교인 비쉬니츠 여자 초등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감사를 받았고, 부정적 평점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일반 학교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종교를 가진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결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인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지바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10일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목양기법

이효상 목사 // 근대문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커피(coffee) 한잔의 유혹에서

아침이면 쓴맛을 보며 하루를 연다. 마치 인생의 쓴 맛처럼, 다음 아님 ‘커피(coffee)’ 한잔의 유혹(temptation)으로 시작된다. 눈 뜨자마자 또는 출근과 동시에 마시는 커피 한잔은 직장인들의 즐거움이자 적(敵)이다. 언제부터인가부터 커피는 일상 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다. 중독이 따로 있다.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던 중독이다.

베토벤(Beethoven)은 매일 의식을 치르듯 커피를 내리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고 한다. ‘매일 아침 나는 더할 수 없는 내 벗과 만난다. 아침에 커피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60알의 원두는 내게 60개의 아이디어를 가르쳐 준다.”고 말했었는데, 커피 한 잔이 예술가들의 혼을 일깨우고,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1년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실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기준 1년에 커피 35.38잔을 마신다고 한다. 하루에 1잔은 마신다는 의미인데,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도 다수 있으니 엄청난 양이다. 커피는 예전 ‘승부’의 자리를 맡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커피의 고향이 어디일까? 커피의 원조국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Ethiopia)다. 커피의 3대 품종 중 가장 향미

가 뛰어난 아라비카종(라틴어]Arabica種)의 주산지로 이슬람 문화권인 아랍과 함께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재배를 시작했다. 사실 커피를 마시게 된 기원에 관해서는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인 아비시니아(Abyssinia)에 ‘칼디’라는 목동이 있었다. 어느 날 염소가 빨간 열매를 붙에 태웠더니 그윽한 커피 향이 퍼지면서 사제들과 이슬람교도들이 커피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 이후 척박한 땅에서 양이나 염소를 치며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슬람교도들은 함이 나는 열매를 가지고 다니며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제들은 밤에 기도를 드릴 때 잠을 쫓기 위해 즐겨 먹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흥해 바로 건너편 나라인 예멘(Yemen)에서 비롯됐다. 이슬람 대사이인 오마르는 모험을 받아 쫓겨 모카(Mocha)라는 항구 도시로 건너오게 되었다. 너무나 배가 고파있던 그는 새가 먹고 있던 빨간 열매를 보고 알리의 계사라 생각해 그 열매로 허기를 달랬다. 그랬더니 배고픔도 사라지고 기운이 나서 그 뒤 그 열매로 병약한 이들을 치료했다. 예멘의 모카 항은

그 뒤로 커피를 수출하는 주요 항구로 이름을 알리며 모카커피(Mocha coffee)의 원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보급되었을까. 그 시간은 천년이 넘게 걸렸다. 아랍인은 지중해를 건너들며 유럽과 활발히 교역을 아나갔고 그 와중에 커피가 점차 유럽인에게 퍼져나갔다. 유럽에서는 한때 커피를 금하기도 했다. 그 당시 유럽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이 가진 힘이 막강했는데, 이교도들이 들어온 음료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고 범죄와 음탕한 생활을 한다고 믿었기에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 부르고 금지하기도 했다. 17세기경부터 유럽 전역에 유행처럼 번져 나갔으며 네덜란드와 프랑스 사람들을 통해 아시아와 중남미로 보급되며 브라질과 콜롬비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커피 최대 생산지들이 생겨나게 된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는 인스턴트(instant)커피가 나왔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에게 휴대용 커피를 마시게 하므로 전쟁에서 승패 결정되기도 하였고도 전한다. 전쟁 후에는 인스턴트식품의 물결을 타고 널리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에 머물 당시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이 문서로 봐서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드링크(Drinker)는 고종황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게 되었을

까? 최초의 커피를 마신 기록은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3. 그 의 저서 『Chosu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에 보면 1884년 1월의 추운 어느 날 조선 고위관리의 초대를 받아 한강 변 별장으로 유럽을 가게 되었는데 풍광 알아볼은 겨울 한강의 정취를 즐기던 중 “우리는 다시 누대 위로 올라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전문점은 20세기 초, 독일인 러시아 공사의 처형인 손탁(Antoniette Sontag, 1854-1925)이라는 독일계 러시아 여인에 의해 들어섰다. 정동에 세운 한국 최초의 호텔인 손탁호텔 안에 커피하우스를 개설한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명동과 소공동 등지에 일본식 다방들이 생겨났다.

대중 보급은 6.25 전쟁 이후 미군들의 식량에 속해 있던 인스턴트커피가 익숙해지고 인기를 얻어 본격적으로 시판되면서부터다. 다방식 커피도 인스턴트커피도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커피드 간에 커피는 그 향미를 즐기며 소통하는 집착집념에는 틀림없다.

우울한 날에는 달달한 커피가 좋다. 사람도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이 더 좋다. 그런 사람은 대개 소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따뜻한 나눔이 행복이다. 우아하게 함께 나누는 커피 한잔의 여유로운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다.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 진다.

커피 한 잔이 주는 선물은 분명 매력적이다. “커피 한잔시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 보면 그럴 때마다 커피를 권하고 마시는 일들이 생긴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때, 으레 마실 커피를 권하는 것이 예의처럼 여겨진다. 좋은 이미지를 지닌 매너 있는 사람으로 통찰력을 겸비한 애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맑은 정신을 갖게 하는 도구 역할도 묵묵히 해내서 바쁜 현대인들과 쉽게 친숙해진다.

모든 만남과 거래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한다. 커피 한 잔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태도와 매너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거나 첫인상을 다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누군가와와 첫 만남이나 미팅 자리에서 마시는 한잔의 커피는 소통을 열어나가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며 멋진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예전동산부터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약하다. 커피 한잔의 유혹은 쉬지 않고 다가온다. 주일에 출석하는 교회 로비에 커피숍(coffee shop)을 차리신 담임 최 목사님은 바리스타(barista) 교육까지 받고 커피머신(coffee machine)을 신나게 당기셨다. 커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신다. 일회용 컵은 이장로님이 제공하셨다.

그런가 하면 남양주 다산동 자치위원회 사무실에도 새해부터 커피머신을 설치하고 별다른(?) 커피가 항상 제공된다. 당연히 안 마실 수 없는 구조다. 대학교 사무실에 나오면 주로 점심을 사 먹는데 식후에 단 맛 좀 보려고 달달한 자몽차로 마셔야지 하다가도 식당에서 주는 공짜 커피인 믹스커피(mix coffee)나 자인들이 사는 아메리카노(Americano)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커피가 가진 커피인 성분은 두 얼굴로 나타난다. 뇌를 각성시키지만 반면 두통과

신경과민, 불안, 현기증을 가져다준다.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가슴 두근거림, 혈압상승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다 오히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 질환을 주기도 하고,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빈혈이나 뼈의 성장을 저해한다. 한 국민들은 칼슘 섭취가 부족해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칼슘의 배출로 오히려 뼈가 되기도 한다. 이런 커피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흥미롭다.

건물마다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겨나고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테이크아웃 컵을 손에든 채 길을 걷는 광경을 보게 된다. 매일 마시는 일회용 잔에 들어있는 커피, 간편하게 먹는 찜라면, 배달음식의 컵 표장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코팅용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휴대용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환경호르몬을 완벽하게 배제하면서 살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컵과 펜을 들고서 나오는 쓰레기를 생각하면 커피가 만들어내는 폐기물의 양은 엄청나다.

음악을 들으며 마시는 커피 한잔의 여유와 사색 인생을 열정을 쏟은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되기를 기대하지만 1g의 원두에서 커피는 0.002g, 나머지는 커피 찌꺼기로 버려진다. 기후위기의 환경 변화에서 비상행동이 필요한 때에 자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것을 재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일회용 컵 등 쓰레기를 최소화함으로 환경호르몬도 줄이고 지구도 보호할 수 있다. 한 잔의 커피의 유혹 앞에서 지혜롭게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습관은 어떨까 싶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復活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

서울서지방회



회장 김현규 목사
사랑장동체사랑교회



총무 우선원 목사
소망순복음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성복교회



총무 이인호 목사
홍재은교회



서기 박정숙 목사
열방교회



회계 정해란 목사
은전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조선남 목사
대림교회



총무 이훈관 목사
순복음신나는교회



저무 회계 주창민 목사
별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정윤기 목사
성영과나눔교회



총무 김사무엘 목사
민음교회



저무·회계 김건표 목사
우리행복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덕영 목사
진리교회



부회장 방정단 목사
임마누엘교회



총무 이기성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서기 심은애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저무 회계 김충수 목사
회복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은금홍 목사
선한이웃교회



부회장·서기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총무 안재철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저무·회계 조광현 목사
드림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이은숙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부회장 성원웅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총무 서기 유두환 목사
부르신교회



저무 이정호 목사
산성교회



회계 김진순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경기남지방회



회장 김기인 목사
별교회



부회장 박종열 목사
오사람교회



부회장 김남순 목사
열산순복음교회



총무 서경호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서기 서성영 목사
복된교회



저무 김진현 목사
비전순복음교회



회계 표현자 목사
시냇가어르신나무교회



경기중부지방회



회장 김동문 목사
동성교회



부회장 이세연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총무 조종수 목사
반석순복음교회



서기 김연태 목사
예수능력교회



저무 최순수 목사
영광교회



회계 박수진 목사
사랑의능력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석호 목사
대구는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우현 목사
영동포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전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김영식 목사
안양은혜와진리교회



저무 이재환 목사
부곡은혜와진리교회



회계 윤형진 목사
영동은혜와진리교회

경기서지방회



회장 김영관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제1부회장 이창순 목사
순복음방주교회



제2부회장 김태권 목사
배곧사망중교회



총무 김영웅 목사
순복음영성교회



서기 최영희 목사
예수교회



저무·회계 김진영 목사
다누리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부회장·총무 유준수 목사
향기타운교회



서기·회계 강인덕 목사
순복음복향교회



저무 문천우 목사
여호수아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김학문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총무 지용희 목사
새생명교회



저무 김동일 목사
기도하는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진우 목사
주안교회



부회장 조연만 목사
일산별교회



총무·회계 양호철 목사
빛과성교회



서기 설수자 목사
순복음광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이득상 목사
푸른교회



총무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저무·회계 김병수 목사
순복음영국전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김정근 목사
명성순복음교회



총무 김진원 목사
예수이름교회



서기 손인환 목사
새벽교회



회계 김리함 목사
사랑의순복음교회

강원북지방회



회장 박순웅 목사
원주총교회



부회장 이정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총무 최정희 목사
성경교회



서기 정주영 목사
강릉순복음교회



저무 이종진 목사
주님의요양교회



회계 박규희 목사
원주성교회

강원서지방회



회장 박성용 목사
평강교회



부회장 정희자 목사
바울교회



총무 김재두 목사
순복음성산은혜교회



회계 김중애 목사
군업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정윤기 목사
대전영무교회



부회장 이미순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이만규 목사
좋은나무교회



서기 차재현 목사
열방열복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김영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부회장 이종만 목사
양문교회



총무 이인복 목사
송곡교회



저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장자교회



회계 정진화 목사
열사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장호순 목사
금강순복음교회



부회장 원문경 목사
세종영순복음교회



총무 전홍식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저무 김영희 목사
순복음창대교회



회계 한정숙 목사
예수사랑교회



청주지방회



회장 정의섭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김상훈 목사
청주성인교회



서기·회계 김선경 목사
세계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장문교회



총무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서기 박성환 목사
달천순복음교회



저무·회계 이범구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신병설 목사
청주주사랑교회



부회장 김 용 목사
새희망교회



총무 조재호 목사
창대교회



서기 기호선 목사
피산순복음교회



저무 권택현 목사
중앙성교회



회계 정재광 목사
순복음성명성교회

경북지방회



회장 권우석 목사
창원순복음교회



총무 유영주 목사
열방교회



서기 각규희 목사
회복교회



회계 장동근 목사
순복음거제중앙교회



경남지방회



회장 권정식 목사
순복음평화교회



부회장 신홍식 목사
한일미일교회



총무 성기찬 목사
방어진순복음교회



서기 황은식 목사
연안순복음교회



저무 권택현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회계 이순애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대구경북지방회



회장 도사현 목사
동해안순복음교회



부회장 허민호 목사
순복음성서교회



총무 이항구 목사
주전교회



회계 정인철 목사
상주성교회

부산지방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復活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

부산광역시지방회



회장 정영진 목사
순복음감일교회



부회장 박영욱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총무 조중화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



저무 윤예연 목사
순복음주신교회



회계 황현선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광주지방회



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부회장 조은주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총무 김영호 목사
순복음은혜의강교회



서기 배영예 목사
순복음영일교회



저무-회계 김정순 목사
은혜의복음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유관영 목사
순복음좋은나무교회



총무 이광호 목사
참리순복음교회



서기 김진식 목사
하늘소망교회



저무-회계 박종석 목사
별업원교회

전북서지방회



회장 심현원 목사
임아누엘교회



총무 안희철 목사
청복순복음교회



서기 김현애 목사
꿈이있는교회



저무-회계 박은석 목사
순복음심원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백명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총무 유광근 목사
순복음광영교회



서기-회계 이태우 목사
선한빛교회

호남지방회



회장 왕상엽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총무 현기봉 목사
강계순복음교회



서기 홍광희 목사
순복음예전교회



회계 민순복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제주지방회



회장 김경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총무 안재훈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

총회직속지방회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페닐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식이섬유 : 타식폴린(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논평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정 해친다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는 망국적 법안, 폐기되어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안 2103811 남인순 안, 2020.9; 2104842 정춘숙 안, 2020.11)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용어의 법적 정의 조항 및 ‘양성’ 삭제 등을 통해 동성간 결합 합법화 및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전더독재화시킨 소위 시민결합법(2004 영국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악법이며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살려나가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개정안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전더 이데올로기적 가족개념에 지배되고 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돼 있으며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이도저대로 삭제해,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개정안 제2조(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동성가족, 전더가족을 수용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적시(指示)한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가족(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부를 기초로 한) 개념에 동성에 가족을 포함시키고자 함으로 위헌적인 시도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남녀 양성 결합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결혼과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전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조된 왜곡된 가정 개념에 지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정, 혼인, 출산의 중요성 인식 및 가족체제의 예방기능을 삭제했다.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개정조항은 선량한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적 근거와 수단이 될 것이다. 개정안은 차별하지 말라는 구실로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악법이다.

2. 개정안은 가족체제 예방 조항을 삭제한 가정해체 망국적인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법이 규정한 “가족(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에 대한 정의(제3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규정(제8조), “가족체제 예방”에 대한 규정(제9조)을 모두 삭제하였다. 개정안은 한국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 및 가족체제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오히려 동성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체제도 예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개정안은 전통적 가정 개념의 해체, 기존의 가족법 체계와도 충돌이 우려된다.

3. 개정안(남인순 안, 정춘숙 안)은 건강한 가정을 거부하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이 내놓는 개정안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며 ‘건강 가족’ 개념을 삭제했다. 이 법은 ‘건강 가족’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건강한 가족을 포기하고 동성결혼 등 온갖 난잡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개정안이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인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일부 서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동성혼과 혼외 결합이 양산되는 동시에 생명과 성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혼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 개정안 제정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정안 폐지 운동에 즉각 나서야 하겠다.

4. 유엔(UN)은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동성결혼의 의미를 내포하는 ‘가족의 다양성’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유엔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지난 2021년 2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9회 회기에서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 결의안에 사용했다. 이번 유엔의 ‘가족 지향(family-oriented)’ 용어 결정은 그동안 가족의 개념에 동성혼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제도라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가족 개념 유지 입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결정은 “도양한 가족” 용어가 갖는 전더주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5. 개정안은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망한다.

대한민국 헌법 36조에서는 양성평등의 가정을 명문화하여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남인순, 정춘숙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치 초헌법적인 법과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 국민들의 선량한 도덕의식에는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전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우리 헌법에도 양성평등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소위 전더 지향이나 전더 평등을 차별금지조항으로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처럼, 이번 개정안도 초헌법적인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헌법적 가치에도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더 평등을 마치 보편적인 인권처럼 주장한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망하는 입법이 아닐 수 없다.

6.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정당화하는 반인륜적이다.

자유민주시민으로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자 동시에 생명과 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고귀한 일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헌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정의 가치와, 이와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육성하여 기르는 건강한 가정의 책임을 위해서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하도록 배려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태아를 보호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성만을 강조하고 태아와 생명권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소위 성해체 성해방의 반생명적 반인륜적 이념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가정을 삭제한 개정안은 동성간 결합을 허용하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 있다.

7. 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유사한 반민주적 독재법이다. 이를 입법화하려는 성해체 성해방의 성정치 세력은 퇴출되어야 한다.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하고 성해체 성해방의 성인지 전더 악법을 사주하는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2005년 10월)에서 건강한 가정의 입법 취지를 비판하고 동성결혼이나 미혼동거와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라고 여성가족부에 요구한 바가 있다. 즉 보편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지향하는 사회적 공동선 즉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함과 비건강함이라는 차별 논리를 앞세워서 헌법의 양성평등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8. 개정안은 양성질서와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양식있는 시민들은 이 개정안의 폐기를 위한 국회청원의 국민발의에 적극 참여하자.

온라인 국회청원 서명 및 공유: <https://bit.ly/360Yum> (청원정족수 10만명, 3.18일 마감, 중고등학교 생도 가능)에 참여하자. 이번 개정안에는 이 안이 주장하는 다양한 가족(동성결혼 내포)에 반대할 경우 차별이라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 즉 이 개정안은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는 그간 국회에서 거듭 시도된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서서 국민계몽과 국회청원(국민발의) 등을 통해서 개정안 완전폐기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생명과 성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윤리적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여 건강하고 변형하는 가정과 사회를 일으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하겠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국민들이 앞장서서 행동할 때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이 지켜지고 건강한 생명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3월 15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코로나19로 힘겨운 노숙인에게 예수 사랑을”

예장백석총회, 서울역에서 나눔 사역 펼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울역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백석총회 임원회는 지난 3월 11일(목)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파스한제음터를 방문해 노숙인 돌봄 사역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미(이사장 박성안)와 함께 따뜻한 한 끼 식사와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선물로 전달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서울역 무료급식소는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0여 명 노숙인 확진자까지 발생해 사역의 어려움을 가중되는 상황에서 백석총회의 이번 나눔은 큰 도움이 됐다. 특히 KF94 마스크는 노숙인들이 무료급식소에 출입하기 위한 필수 물품이다.

제1부총회장 정영근 목사는 “백석총회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신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중 나눔은 길이 절실한 코로나19 시대를 보내고 있다. 도움의 손길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더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사단법인 나눔미의 사역에 교단 교



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2부총회장 김진범 목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노숙인들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 마주한 것을 보면서 작은 정성이라도 교단 차원에서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특히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데 노고를 치하하며 총회가 더 돕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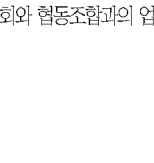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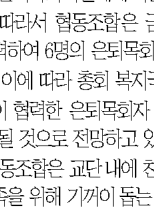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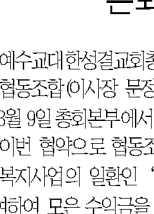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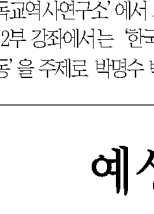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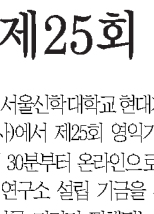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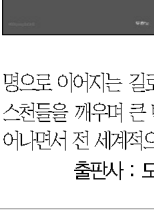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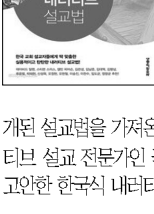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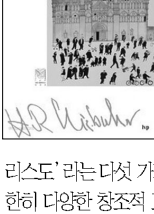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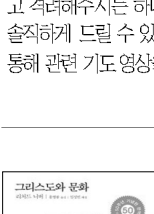
사단법인 나눔미를 설립한 백석총회 소속 박종환 목사와 김해연 사모는 1999년부터 22번째 노숙인들

과 쪽방 주민을 위한 섬김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4년 전부터 아들 박성안 이사장까지 합류해 거리 노숙인을 향한 섬김과 헌신에 동참하고 있다.

박성안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교회뿐 아니라 총회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울 텐데, 총회 임원회가 노숙인들을 생각해 선물까지 준비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이번 총회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이 성서하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간 안내

따라 하는 기도



따라 하는 기도

기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은 간구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같은 기도문.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인데 기도를 따라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기도는 하늘의 언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말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양양 우는 부르짖음에서 온전한 대화에 이르기까지 말도 없고 기도도 지라간다. 무엇보다도, 틀린 기도를 하더라도 넉넉히 헤아리며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창자(창者)이며 부모와 스승이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어떤 기도든 솔직하게 드릴 수 있다. 이 책은 수많은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31개 영상의 기도문을 담았으며, QR코드를 통해 관련 기도 영상을 함께 들을 수 있다.

저자: 장재기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1-03-22 | (132*210)mm 272p | 판매가: 15,000원

그리스도와 문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니버의 신학적 고찰이 담긴 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어진 하나님과 몰입하고 있는 문화 사이에서 씨름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니버는 에른스트 트릴러가 주장한 교회 유형과 분파 유형을 확장하여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형하는 그리스도’라는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하지만 니버가 머리말에서 밝히듯, 유형론은 기독교 안에 있는 무한히 다양한 창조적 도덕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후기의 해석자들 가운데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니버는 자신이 제시한 유형들 중 특정 유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저자/역자: 리처드 니버/홍병룡 | 출판사: IVP
발행일: 2007-12-10 | (136*210)mm 416p | 판매가: 18,000원

보이는 내러티브 설교법

이 책은 이야기 형태의 본문을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한 ‘실제적인 내러티브 설교법’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의 특징과 그에 대한 해석은 성경신학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교자가 이야기 형태의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법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내러티브 설교법은 해외에서 소개된 설교법을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NCP) 한국 공동대표이자, 내러티브 설교 전문가인 권호 목사가 그동안의 오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 설교자들에게 알맞게 고안한 한국식 내러티브 설교법을 전한다.

저자: 권호 | 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2021-02-25 | (150*220)mm 232p | 판매가: 14,000원

팬인가, 제자인가[에센셜 에디션]

키일 아이들먼은 요즘 교회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솔직한 어조로, 크리스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길의 방점은 용서보다 회개, 구원보다 항복, 생명보다 죽음에 있다. 그 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다. 사이드라인 밖에 앉아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 책은 자기심자기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참된 기쁨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로 가라는 초대와 메시지다. 이 책은 예수님의 팬인 것으로 만족하고 살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깨우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메시지에 도전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not a fan’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저자/역자: 키일 아이들먼/정성목
출판사: 도서출판 두란노 | 발행일: 2021-03-18 | (125*190)mm 192p | 판매가: 10,000원

제25회 영익기념강좌 온라인으로 진행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박명수 박사)에서 제25회 영익기념강좌를 오는 3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연구소 설립 기금을 후원한 장흥대교회 故 김영익 집사를 기리며 진행되는 이 강좌는 유튜브 채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시청할 수 있다. 2부 강좌에서는 ‘한국전쟁 전후의 월드비전 창립과 활동’을 주제로 박명수 박사(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

장, 서울신대 명예교수)가 강의한다. 논찬은 양용희 박사(한국비영리학회 회장, 전 서울신대 교수)가 맡았다. 이어서 박창훈 교수(서울신대)가 ‘세계교회위원회의 한국활동과 그 의의’를 발표하며, 강준근 교수(휴넷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부)가 논찬한다. 앞선 1부 예배사회는 장금현 박사(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설교는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가 맡는다.

예성총회-예성협동조합 협약

은퇴목회자 생계지원을 위해 전국교회 참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총회장 김윤석 목사)와 예성 협동조합 이사장 문정민 목사/이하 협동조합이 지난 3월 9일 총회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협동조합은 은급 재정지원 및 교단 내 복지사업의 일환인 ‘미션 비즈니스’에 전국교회가 참여하여 모은 수익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은퇴목회자들에게 지원하게 됐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금년 3월부터 총회 전사운동과 협력하여 6명의 은퇴목회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회 복지국과 좋은 이웃, 협동조합 세 기관이 협력한 은퇴목회자 생계지원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동조합 문정민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교단 내에 친구 같은 존재이고 어려운 성경 가족을 위해 가까이 돕는 친구가 되길 바라고 있으며 이번 협정이 그 첫 손길”이라고 밝혔다. 또 이강춘 총무는 “총회와 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은퇴 목회자 지

원은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친구의 모습과도 같으며, 총회와 협력기관과의 협력은 개 교회와 교단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예성 총회 복지국에서는 현재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용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1차로 경남지방회 시냇가예성교회와 선정되어 예배실 음향설비 구입 설치비를 일부 지원했다.

교회 담당자인 박종렬 목사는 “총회의 지원으로 음향설비가 설치되어 예배와 기도회 인도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총회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목회용품지원사업은 복지국에서 공시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지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월 1곳의 교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예성 교단 소속 교회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총회 홈페이지 공시사항 또는 사회복지국 게시판에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생명나눔 운동에 모두 함께해요”

5인조 걸그룹 마카마카 홍보대사 위촉식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3월 9일(화) 오전 11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5인조 신인 걸그룹 ‘마카마카’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 행사에는 코로나19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마카마카(희수, 은비, 채원, 다슬, 디아) 및 소속사인 블루본엔터테인먼트 관계자와 본부의 박진탁 이사장이 참석했다.

마카마카는 생명을 존중하고 희망을 전하는 음악인이 되고 싶은 바람으로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이후 SNS에 멤버 전원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들고 촬영한 인증샷을 남기며 생명나눔 실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본 팬들은 ‘마카마카 멋지다’, ‘착하다’라고 댓글을 남기며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기기증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마카마카 리더 희수는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어 서약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운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선행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건강을 걱정하는 요즘 생명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라며 “장기부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 생명을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0년 8월 싱글앨범 ‘버닝파워’로 데뷔한 마카마카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군인공제회 C&C, 나라사랑 홍보대사로도 위촉된 바 있다.

미얀마 아동·시민 학살 중단 촉구

월드비전 성명발표, 아동·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보호가 보장되어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미얀마 아동과 시민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월드비전은 공식성명서를 통해 “아동들과 민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사태 확산으로 인한 이들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특히 취약 아동 및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폭력 사태는 아동과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와 신체적 폭력을 가하게 돼 기존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생활고와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월드비전은 국제 인도주의법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현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시급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비전은 미얀마에서 26년간 50개의 사업장에서 지역개발 및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2백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지원해왔다. 성별, 민족, 종교에 대한 차



별 없이 주민들의 생계지원, 식량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아동들의 교육 지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월드비전은 미얀마에서 4군데의 사업장을 통해 9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천 8백여명 후원자의 도움으로 해당 지역의 아동과 주민들을 위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월드비전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 보고는 없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아동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사업 활동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한국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이번 폭력 사태는 취약한 어린이와 주민들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더 이상 갈등을 통해 무고한 아동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월드비전은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사업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아동과 주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군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양곤이나 만달레이 같은 미얀마 주요 지역에서 시민들의 시위 참여와 함께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송·전화·인터넷 접속이 통제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CTS기독교TV,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 개최

총 상금 5,000만원, 3월 1일(월)~4월 23일(금)까지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는 음악을 통한 문화 사역을 위해 CTS [K-가스펠]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제1회 K-가스펠 은 국적 불문, 나이 불문, 장르 불문으로 기존 가스펠 대회와는 차별화를 두었다. 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찬양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자 누구나 참여하도록 참가 대상의 장르와 부문도 다양하게 참여의 문을 열었다. 미스터 트롯 준결승 진출자인 트로트 가수 류지

광이 사회자로 활약을 보여줄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다양한 장르와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 및 음악관련 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뮤지컬 명성왕후 영문 초연 감독이었던 김문정 뮤지컬 감독과 연기뿐 아니라 합창의 대부 가수 양동근, 불후의 명곡 단독 10회 우승 등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유명한 가수 알리, 남자의 자격 편에서 찬양의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가수 베디해, 요계벳의 노래 등 다양한 CCM 작

곡가로 알려진 엄광만 작곡가, 가시나무(시인과총장/조성모), 한계령(양희은) 곡을 작곡한 백석예술대학교 하덕구 교수, 대전 중문교회 장영동 목사, 국내 유일한 경배와 찬양 학과 학교장 전주대학교 김문백 교수, 가수 루카(여왕스케치),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 모스틀리 필하모니 박상현 지휘자, 찬양차역자 전용대 목사, 최미 선교사, 김석균 선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K가스펠 운영사무국 (02)6333-1127

전주 예수병원-전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에서 전주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전주 예수병원은 지난 3월 9일(화) 전북대학교 병원, 대지인병원, 전주병원과 함께 전주시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적극적인 치료, 의료적 자문, 아동학대 개선 및 신고의무자 교육, 홍보활동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김호권 예수병원 대외협력부장은 김승수 전주시장

에게 “예수병원은 학대 아동뿐 아니라 노인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의료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항숙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장은 “예수병원은 이전부터 학대아동의료지원팀이 구성돼 있고, 피해자가 아닌 아동 권리 강화 차원으로 2015년에 아동보호위원회로 개칭돼 의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외된 이들에 대한 예수병원의 이웃사랑을 더욱 확고히 알리게 됐다”고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수난절을 맞이해서 위고노들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면서 신앙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화살과 박해, 재산 몰수, 수감과 노예 생활, 가족 간 생이별 등 무수한 고난을 재확인하였다

지금은 수난절 제5주를 맞고 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역사적 사실 앞에 숙연해진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정 참여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작금에 코로나19로 인한 시련과 난관의 고통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기억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신앙 양심을 따라 성경적인 믿음(Sola Fide),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Sola Gratia),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으

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태오르는 갈망이 있었다.

우리는 대순간 놓치지 말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왔 다. 어젯밤 택시안에서 짧은 순간에도 운전하는 택시기사 선생님께 영접기도를 하였다. 가족세트 박영수 목사의 영접기도는 참으로 능력전도다.

가족세트전도본부장
문화선교TV 방송MC
사신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4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대방 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 - 26)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믿음으로, 에스겔골짜기 마른뼈같은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간구하는 기도의 주역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조직

임원단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빌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전국지부

예배부장	선교부장	복자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재정부장	행정부장	기획부장	행사부장	친교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회복교회 김순자 목사	진리와사랑교회 이복순 목사	군암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대전대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주계교회 김찬애 목사	일산탄영교회 조영란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순복음빛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부지부회 지부장 서광호 목사	서울중앙지부회 지부장 정예스더 목사	서울남지부회 지부장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경기지부회 지부장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중앙지부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경기남지부회 지부장 사남예수교회 표현자 목사	경기북지부회 지부장 풍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일산지부회 지부장 순복음생명교회 실수자 목사	대전지부회 지부장 목자교회 김철평 목사	충북지부회 지부장 늘푸른교회 서명란 목사
충남지부회 지부장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충서지부회 지부장 서산성교회 오수경 목사	충주지부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부회 지부장 세계로교회 정금자 목사	영남동지부회 지부장 순복음예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부회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부산동지부회 지부장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호남지부회 지부장 순복음중앙교회 정복례 목사	인천지부회 지부장 온혜사랑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유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아산교육장
진동용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최순식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진동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박차영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한 목사, 광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정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흥규 목사, 이기연 목사, 박성화 목사
정진학 목사
총무 최순식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광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준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광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한상문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그물을 던지세요

주님 사랑 받는 자에겐 그물이 있어요
누구나에게 공평히 주신 선물입니다.
많이 많이 수확하라고 주신거지요
무엇을 수확하는지 궁금하지요?

그 그물은... 사람도 낚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생기를 붙여 놓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살 수 없거든요.

전도의 그물을 던져 생명을 수확하고
섬김의 그물을 던져 사랑을 수확하고
기도의 그물을 던져 응답을 수확하고
말씀의 그물을 던져 역사를 수확한답니다.



수요예배의 감동이 마음에 남는 귀가길...
사람 낚는 어부의 그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무궁 무진하구나
낚으라 주신 것들 최선을 다해 낚아차지...

이스라엘, 유월절 방문객 위한 '통곡의 벽' 보존 작업 돌입

이스라엘 관광청은 순차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 중인 이스라엘이 2021년 유월절을 앞두고 통곡의 벽 보존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위치한 제 2차 성전의 남은 벽으로,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처이다.

소방이나 기도를 적은 종잇조각을 돌 틈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관습에 따라 매년 1,200만 명이상이 이 곳을 방문한다. 코로나19의 영향 하에서는 칸막이 설치 및 방문객 인원 제한과 온라인 가상방문 사이트로 운영해 왔다.

최근 전 국민 백신 접종과 함께 순차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통곡의 벽 유산 재단의 기술자들과 이스라엘 유물관리청 관리자들은 통곡의 벽 보존 작업을 시작했다.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예정된 2021년 유월절을 앞두고 진행된 이 작업은 2천 년 이상 이어져 온 고대의 돌들을 보존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매 6개월마다 유월절과 주요 성일 이전에 진행됐다.

풍화작용 및 동식물로 인한 자연생태계로 인해 약화돼 가는 통곡의 벽돌들을 강화하고 보존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통곡의 벽 광장 내 수백 개의 돌 하나하나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돌의 결질부인 외층 강화의 필요성이 발견됐다.

이번에 진행된 통곡의 벽 보존작업은 비 파괴적인 방식을 채택해, 의료진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주사기를 사용했다. 돌에 구멍을 내는 대신, 돌의 틈새 및 균열에 석회석을 녹인 액체 상태의 그라우트를 주입하고 건조해 균열을 복구한다. 문화유산 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모테치이 술리 엘리야브

(Mortechai Suli Eliayb)는 "코로나19 영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 종식 후 통곡의 벽으로 돌아올 방문객을 위해 성벽의 고대 돌을 보존하고 예배자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관광청 조정윤 소장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인 '통곡의 벽'이 방문객 맞이할 위한 보존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조만간 통곡의 벽"을 직접 방문하고 기도문을 적어 넣을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설

부활의 감격을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왕 노릇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께는 없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9)고 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2천년 전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먼저 믿어야 한다. 보고 믿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 끝이 났다.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이 전부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바라 요구하신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할 때 "오직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다. 다음으로 증거해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내 가족, 부모 형제를 구원해야 한다. 아들의 세력에 의해 포로되어 신음하는 북한 동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한다.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난 이후의 여인과 사도들의 삶은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이었다. 마귀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삶이 구원과 생명, 자유와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미 주님이 가서 일하고 계신 곳을 따라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한다. 부활의 감격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서울광장에서의 쿼어행사는 중단되어야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며, 이를 사용함에는 서울광장 사용의 규칙에 반하여 논란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당시 박원순 시장) 동상에 쿼어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박원순 시장은 동상에 쿼어 행사를 하도록 꾸준히 장소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에 시민들의 공복(公憤)인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광장에서의 쿼어 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시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하나는 성명 하복(上命下服)의 공직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데도 의견을 냈다는 점, 또 하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분명한 공직자의 목소리를 낸 점이다.

그런데 2020년 4월 서울시 인권담당관 산하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에서는 의견을 낸 공직자들을 '성 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 소수자를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서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까지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이 결정에 대

하여 서울시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들은 누구를 혐오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쿼어 행사는 유란한 행위였고, 이런 모습은 서울광장 사용의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한 가지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 인권위가 이들을 혐오와 차별자로 몰아간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마디로 입 닫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압력이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차별과 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위반하기보다 이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시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서울시 인권위가 이런 결정과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

차기 서울시장이나 누가 되든지, 국민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맞는 시정(市政)을 펼쳐야 한다. 직전의 고 박원순 시장처럼,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동상에 쿼어 행사를 허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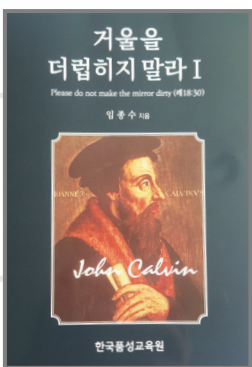
●편 집 고 문 : 정채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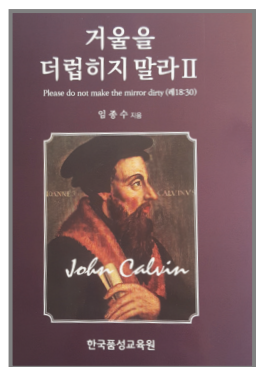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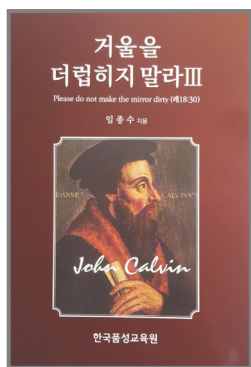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 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